

# 16년만의 다자구도...더민주·국민의당 '호남 맹주' 놓고 접전

## 막으려 본선 레이스...광주·전남 관전 포인트

### 전국 판세·반문재인 정서·후보 경쟁력서 판가름 날 듯 31% 예선서 물갈이...현역 얼마나 살아 남을지도 관심 천정배-양향자, 송갑석-송기석, 서삼석-박준영 빅매치

4·13 국회의원 총선거가 2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총선은 지난 2004년 총선 후 16년 만에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15년 이상 제1야당 대 무소속 또는 여당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지던 선거가 야당 세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양분되면서 복잡한 선거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또 선거구가 재획정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맞붙는 지역구가 나타나거나 하면 정치 신인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정치권 지도자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반감이 어느 때보다 강하고 각당이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각 당 지도부의 시스템도 혼선을 빚고 있어 후보자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선거가 되고 있다.

◇광주·전남 제1야당=야당의 텃밭인 만큼 광주·전남 맹주 자리를 놓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불꽃 튀는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현재 광주 지역구 현역 의원 8명 중 국민의당 소속은 더민주를 탈당했거나 당 대 통합으로 합류한 천정배·박주선·장병완·김동철·임태현·권은희 의원 등 6명이다. 더민주 소속은 강기정·박해자 의원 2명이다.

전남의 경우는 지역구 현역 의원 11명이 더민주 5명(김성곤·우윤근·신정훈·김영록·이계호), 국민의당 4명(박지원·주승용·황주홍·김승남), 새누리당 1명(이정현), 기자자유당 1명(이윤석)으로 재편됐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더민주 7명, 국민의당 10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현역 의원 구도만 놓고 볼 때 국민의당이 제1당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더민주가 제1야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적으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다면 광주·전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 각당이 모두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원만히 극복하는 정당의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반문재인 정서 ▲현역 의원에 대한 불만 여론 ▲후보 경쟁력 등도 총선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물갈이 정도=일단 공천 과정에서 많은 현역 의원들이 공천 배제되면서 어느 총선보다 물갈이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는 8명의 현역 의원 중 3명이 공천에서 배제됐고 전남에서도 11명 현역 의원 중 3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날 현재까지 19명

의 현역 의원 중 6명이 탈락, 일단 교체율은 31.6%다. 여기에 본선에서 추가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물갈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광주·전남 전체 20명 의원 중에 13명(65%)이 생존해 현역 의원 교체율은 35%였다.

◇빅매치 승패는=야권의 재편으로 광주·전남지역 4·13 총선에서는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대결이 준비하다. 광주에서는 지방대(전남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전대협 의장을 한 뒤 생활정치를 해 온 송갑석 후보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송기석 후보가 맞붙은 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에 맞서 정치신인이자 고졸 신화를 이룩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사무가 출마한 광주 서을, 현역 의원이 탈락하고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과 최경환 전 김대중 평화센터 공보실장 등이 경쟁하는 광주 북구을, 18·19대 의원을 지낸 더민주 이용섭 전 의원과 더민주를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권은희 현 의원이 맞붙는 광주 광산을 등이 격전지로 꼽힌다.

또 전남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 재선에 맞서 더민주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국민의당 구희승 변호사가 출마한 순천, 강진 출신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고흥 출신 비례대표 신문식 의원이 맞붙은 고흥·보성·장흥·강진,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에 오른 더민주 소속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국민의당 소속인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여기에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비례) 등이 경쟁하는 영암·무안·신안 등이 흥행 선거구가 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심히 뛰세요”...공천장 수여 더불어민주당 김중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건기 의원에겐 공천장을 수여하고 있다. (왼쪽) 이날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장성철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한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심히 뛰세요”...공천장 수여 더불어민주당 김중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건기 의원에겐 공천장을 수여하고 있다. (왼쪽) 이날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대회에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장성철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한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운태·김하중·강도석...무소속 바람 얼마나

### 양혜령 前시의원 광주 동구청장 무소속 단일화 후보 출마

광주·전남지역 일부 공천탈락자 등이 4·13 총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공천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무소속 후보로, 옥중 출마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시장 측은 25일 광주 동남갑 후보로 등록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 중이다. 강 전 시장은 16대와 18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저력을 발휘한 바 있으며, 고정 지지층도 비교적 탄탄해 지역구 선거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곳에 출마하는 강도석 후보도 옛 남구를 포함해 18번째 무소속 도전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8번째로 남구정당 선거 7번, 시의원 선거에는 3번 출마했다.

국민의당 경선에 반발해 탈락한 김하중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지역구인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당 당헌과 당규를 직접 만들었던 창당 멤버에도 탈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천 대표의 횡포 때문”이라며 “천 대표는 이 당, 저당을 기웃거리다가 철새처럼 날아와 패권적 계파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서구를 경선을 요구했으나 당이 천 대표를 단수공천하자 반발해왔다. 당은 김 후보를 복구율로 옮겨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했지만, 그는 경선률이 또다시 변경되자 불복해 탈당했다. 서구을은 천 대표와 더민주 양향자 후보가 격돌하는 곳이며, 천 대표로서는 국민의당 지지층 분산이라는 약점을 안게 됐다. 서구을에는 새누리당 김연욱 후보, 정의

당 강은미 후보, 민중연합당 고기담 후보도 출마표를 던졌다.

이밖에 광주 동남을에는 고흥술, 북구갑 박대우, 북구을 노남수·이영수, 광산을 김중구·한남숙 등이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들 중 몇 명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지 주목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도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이 24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양 전 시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이었던 문팔갑 전 화순군의회원과 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펼쳐 동구청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는 더민주 홍진대 후보와 국민의당 김성환 후보, 무소속 양혜령 후보의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더민주 공천자 절반이 범친노...‘친문’ 최대계파로

### 비노 42명, 중립 성향 55명 정세균계 핵심들 대거 탈락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천 결과, 범(凡)친노(친노·무현)계가 공천자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민주 공천이 확정된 235개 선거구 중 199곳의 후보 성향을 분석한 결과, 범친노 후보가 102명, 비노(비노·무현) 후보가 42명, 중립 성향 후보가 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범친노에는 친노, 친문(친문·재인), 안희정계, 정세균계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 일부, 시민사회 출신 인사 일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 그동안 불분명하던 친문 세력이 형성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선

데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지 당 대표를 맡아와 하나 하나의 계파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전문 성향 후보들은 전철·홍영표 의원과 김경수·송인배 후보 등 전통적 친노 외에도 은수미·진선미·진성준 의원 등 문 전 대표가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벌인 이후 가까워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문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정치신인 중 13명이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비례대표 역시 당선 가능권의 절반 가량이 문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이다.

그러나 범친노 후보들은 20명이 넘는 인사들이 불모지인 부산·경남에 출마, 총선 이후에도 원내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할지는 미지수다.

한때 최대 계파를 형성한 정세균계는 공천 과정에서 핵심이 대거 탈락, 세력이

약화됐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박수현 의원과 김종민·정재호 후보 등 5명 가량이 공천을 받았다.

비노 진영은 구(舊) 민주계와 순학규계 등을 비롯해 42명이 공천을 받았지만 세력 면에서 범친노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상당수 비노 인사들이 자문만 맡았을 수 있음을 필두로 탈당대열에 나서며 국민의당에 합류한 때문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측근인사 10여명 중 2명만 공천 관문을 통과했다.

안구백·신문식 의원 등 구(舊) 민주계와, 양승조·이찬열·이준석 의원 등 순학규계가 각각 10명 남짓한 후보를 배출했다.

중립 성향 역시 55명에 달해 이들 후보가 얼마나 당선되느냐에 따라 당내 역학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태영21 병원**  
TAEYOUNG 21 HOSPITAL

#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좌장 · 이문규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이사장)  
강사 ·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강호철 교수(화산전대병원)  
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현 당뇨병학회 수석 부총무)  
양태영 원장(태영21병원, 현 당뇨병학회 일차진료 이사)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30~4:30  
장소 · 태영21병원 2층 세미나실  
문의 · 062)362-0075(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광주천변로  
광천사거리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